

# 6억이하 아파트 DTI 차등 적용

&lt;총부채 상환비율&gt;

## 시중銀, 주택대출 상환능력 감안 40~60% 차등 방안 추진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 가격과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총 부채상환비율(DTI)을 40~60%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선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소득 증빙자료로 추가하고 대출시 통계청이 제시한 지역별·업종별 추정소득을 적용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적인 여신 심사 기준을 만들어 22일 금융감독원에 보고

했다.

우리은행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 구내 6억원 이상 아파트에 적용 중인 DTI 40% 규정은 그대로 시행하되 투기 및 비투기지역 감정가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상환능력을 감안해 DTI 50~60%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감정가 6억원 이하 아파트 가운데 신혼부부나 미취학 아동을 둔 대출자에게는 DTI 60%,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개인사업자는 DTI 50%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일 경우 교육비 등 생활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신혼부부 등에 비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DTI비율을 더 낮게 적용한 것”이라면서 “자영업자에 대해선 부부합산으로 보험료, 카드 사용액 등을 소득증빙 범위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현행 투기지역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DTI 40% 규정은 그대로 두도 3억~6억원은 DTI 40~60%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통계청 등 자료를 활용해 추정소득을 인정하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1건당 5천만원까지는 DTI 와 관계없이 대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앞으로 소득이 변할 수 있는 신입 사원의 경우 회사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대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역시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DTI 40% 규정은 현재대로 시행하면서 투기 및 비투기지역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차주의 신용등급이나 아파트 가격 등을 기준으로 DTI를 40~60% 차등 적용하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출자의 부채비율(총 금융기관 부채/대출자의 산출소득)도 감

안하기로 했다.

부채비율이 250% 이하일 경우는 그대로 대출하되, 250~400% 사이에 해당하면 가산금리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준에도 부채비율을 적용해왔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부채비율 250% 이상은 위험 가중 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이상 대출시 고객에게 가산금리를 물도록 하거나 대출한도를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사회 초년병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두는 등 DTI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휴대전화 도·감청 차단

### SKT·KTF 서비스 개시

휴대전화 불법 도·감청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23일부터 개시된다.

SK텔레콤과 KTF는 이날부터 휴대전화 무선구간(기지국~단말기)에서의 음성통화 내용을 암호화 해 도·감청을 차단할 수 있는 ‘음성 보안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이달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음성 보안 서비스는 기지국과 휴대전화 사이를 오가는 음성 데이터를 ‘프라이빗 루트 코드’를 통해 128비트로 암호화해 전송하는 것이다.

서비스 가능 지역은 CDMA2000 1X 네트워크가 구축된 전국 시 단위나 일부 구 지역까지이며 이동통신 서비스 초기에 구축된 IS95 A/B 네트워크가 구축된 지역 등은 제외된다. 단, KTF의 경우 프라이빗 루트 코드를 지원하지 않는 루슨트 테크놀로지 장비를 사용하는 경남 및 부산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는 KTF의 경우 2005년 3월 이후 출시된 단말기이며 SKT는 2006년 10월 이후 출시된 단말기이다. LGT는 이달 말부터 보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를 출시할 계획이다.

요금은 SKT와 LGT가 월 2천원이며 KTF는 1천500원이다. 서비스 신청은 통장적인 부가 서비스 가입하는 것처럼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SKT는 5월1일까지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연합뉴스

## “경제 민족주의 확산... 투자 조심”

### 자국 실업 증가·국부 유출 우려 사업 확장 막아

#### LG경제研 “기업 망하는 치명적 문제 될 수 있다”

극단적인 자국 중심적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경제민족주의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할 때 각국의 투자환경과 사업기회에 대한 검토를 엄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23일 ‘사업의 글로벌화, 경제민족주의에 대비하라’라는 보고서에서 “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경제민족주의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면서 “에너지 문제, 선진국의 저성장, 국가간 소득불균형 등 전세계적인 문제方が 도

화선이 된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자국민의 실업증가,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 등 국내문제가 불씨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최근 확산되는 경제민족주의는 ▲과거 중동지역 국가들이 주축이 됐던 것과 달리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석유 등 에너지 자원 뿐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자원공급 규제 뿐 아니라 기업인수제한, 사업의 국유화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같은 각국의 경제민족주의는 해당국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의 사업확장이나 자원개발 등 새로운 투자기회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고, 사업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조정을 곤란하게 하며 이미 영업중인 사업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켜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경제민족주의적 행동에 대한 사후적 해결책이 별로 없다는 것”이라면서 “사후적 대응책이라고 해봐야 국제사법재판소, 국제분쟁조정기구 등에 제소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데 이 방법은 필요한 시간도 길고 해결된다 보장도 없어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는 31일로 예정된 새 운영체제 윈도비스타의 개인용 버전 출시를 앞두고 한국 MS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모국장 앞에 22인치 모니터 18대로 조형팀을 세워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 신권 경쟁 없앤다

#### 새 고액권 앞번호 시중銀 통해 공급

새 1만원·1천원권 발행 과정에서 일련번호가 빠른 신권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한국은행이 향후 발행될 고액권의 경우 앞번호 지폐를 한은이 아닌 시중은행을 통해 무작위 공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새 1만원·1천원권 발행을 앞두고 수백명이 한은 앞에서 밤샘4 노숙하며 장사진을 친데다 화폐교환업무가 시작된 후 대기자들 간 순서 다툼으로 극도의 혼란이 초래된다는 때문이다.

23일 한은 고위 관계자는 “새 지폐 첫 발행과정에서 심각한 불상사는 없었지만 만일 대기자들간의 충돌로 상사가 발생하거나 한은에 근무하는 경원경찰관들로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질서 상황이 연출됐다면 중앙은행의 위상과 신뢰도에 큰 흠집이 초래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신권 공급 방침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규모가 30억원미만이면 조세법 처벌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 상당액의 2배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30억원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최고 3년이상의 징역 및 부가세 상당액의 2~5배 벌금형이 병과된다.

이 조직은 그동안 적발된 자료상 중 최대 규모로, 최근 5년간 하위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최소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주장했다.

이 조직은 회계사 명의 등을 빌려 남

대문 시장내 8개 집단상가 689개 사업체

를 상대로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하는 이른바 ‘뻥튀기 거래’ 방식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공급해왔으며 수익의 일부를 상가번영회에 키미션으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자료상 조직인 ‘Y사단’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일간의 잠복 및 미행 끝에 지난 22일 현장을 급습해 조세범죄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자료상 조직인 ‘Y사단’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일간의 잠복 및 미행 끝에 지난 22일 현장을 급습해 조세범죄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규모가 30억원미만이면 조세법 처벌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 상당액의 2배이하 벌금형에 의해 30억원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최고 3년이상의 징역 및 부가세 상당액의 2~5배 벌금형이 병과된다.

이 조직은 그동안 적발된 자료상 중 최

대 규모로, 최근 5년간 하위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최소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 ‘윈도 비스타’ 꼼꼼히 살핀 후 구매를

#### 인터넷 뱅킹 서비스 충돌

#### 개인용 버전 호환 결함

정보통신부는 23일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31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윈도 비스타 출시에 앞서 점검을 한 결과 일부 서비스에서 프로그램 수정이 완료되지 않아 1~2개월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용자들은 이를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출시되는 윈도 비스타는 괴상 필터링, 스파이웨어 제거, 개인방화벽 개선, 사용자계정제어(UAC) 등 보안기능을 대폭 강화했으나 이 보안 기능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액티브 X를 활용한 응용프로그램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호환성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뱅킹, 온라인 게임에서 인증서관리,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거나 전자민원 서류 발급 시 화면이 깨지고, 프린터가 안되고, 포털에서 영상 올리기·내려받기, 음성·동영상 실행이 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정통부는 말했다.

UAC는 바이러스나 월, 스파이웨어 등의 악성코드 방지를 위해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프로그램 설치 등에 한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의 권한 제어에 이용되는 기능이다.

액티브 X는 응용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영상, 문서 등을 웹과 연결하고 웹을 통해 사용자 PC에 프로그램을 설치, 구동하는 기술로 플레이시, 동영상, 보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연합뉴스

## “유류 담합 5개 정유사 810억 배상하라”

### 서울중앙지법 판결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던 5개 정유사들이 국가에 810억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23일 국방부가 SK㈜ 등 5개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80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입찰방식을 통해 국방부에 공급한 유류 대금을 담합한 사실이 형사사건과 짚기로 확인된 만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원고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제시했으나 이는 표준시장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돼 재판부가 의뢰한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해 (담합하지 않았을 경우) 가상 가치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지난 1998~

### 퇴직 고위 경제 관료 84%

#### 업무관련 기업체에 재취업

퇴직한 고위 경제관료의 84%가 재직 중 업무와 관련성이 큰 기업체나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참여연대 맑은사회민들기본부에 따르면 2001~2006년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에서 퇴직한 인사 중 취업제한제도 대상인 고위 공직자 283명의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84%인 243명이 업무와 관련된 곳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한 고위 경제관료들이 재취업한 새 직장은 금융회사(42%)가 가장 많았고 이어 기업(21%), 법무법인(12%), 산하기관(7%) 등 순이었다.

특히 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금감원의 퇴직 관료 73%와 재정경제부의 관료 40%가 각각 금융회사로 재취업했고 국세청의 경우 퇴직자의 34%가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회계법인이나 주류관련 업계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관별로는 공정거래위원회(89%)와 금융감독위원회(82%)의 재취업률이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